

보르헤스의 역사관과 글쓰기*

민원정(한국의국어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역사의 객관성과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의 역사가 액턴(1834-1902)은 1896년의 한 보고서에서 “지금이야 말로 19세기가 막 전달하고자 하는 풍부한 지식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더없는 기회이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완전한 역사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정보든지 입수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 가능하므로, 전통적인 역사를 마감할 수 있고 전진의 도정에서 우리가 도달할 지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 이 논문은 2000년 12월 9일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말하였다.(카, 1998: 15)¹⁾ 그러나 E. H. 카는 그 후 60년 뒤의 문헌에 나타난 그러한 '완전한 역사'에 대한 의심을 인용하고 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조금치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거듭하여 극복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과거의 지식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계승되어왔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어왔으며', 따라서 그 어느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최소 단위의 비인격적인 원자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구는 끝이 없는 듯이 보이며, 그래서 일부 성급한 학자들은 회의주의 속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모든 역사적 판단에는 인간과 관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판단은 저 판단과 마찬가지로 옳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리 속으로 도피한다.(카, 1998: 16)²⁾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의심과 자신들의 연구가 '거듭하여 의심받고, 발전하여, 극복되기'를 바라는 후대 역사가들의 소망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하고 기록해야 할 것인가. 보르헤스는 "『보바르와 뻬꾸세』에 대한 변론 *Una vindicación de Bouvard et Pécuchet*"(OC I, 1997: 259-262)³⁾에서 "과학은 무한한 공간에서 자라는 유한한 구체이다. 즉, 매 번의 새로운 발견은 알려지지 않은 곳에 대해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알려지지 않은 곳은 무진장하다."고 말한다.(OC I, 1997: 261)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우주론을 변화시키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고의 영역을 넓혀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언뜻 인간의 사고영역을 넓혀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를 짓고 광범위함을 가장한 채 사고를 틀지웠다. 이는 미지의 공간을 헤매면

1) *The Cambridge Modern History: Its origin, Authorship and Production*, 1907, pp. 10-12, 여기서는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p. 15에서 재인용.

2) *The Cambridge Modern History: Its origin, Authorship and Production*, pp. xxiv-xxv, 여기서는 E. H. 카, 위의 책에서 재인용.

3) Jorge Luis Borges, *Obras Completas I*, pp. 259-262, Barcelona: Emecé Editores, 1997. 앞으로는 OC로 표기하기로 한다.

서도 마치 이를 점령한 듯 자만하는 인간에 대한 보르헤스의 비웃음이자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르헤스가 실제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무한한 공간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비웃음의 차원을 넘어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 밖에, 공간 없이 존재해야 한다는 제안일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보르헤스는 “현실의 차종적인 견해 *La penúltima versión de la realidad*”(OC I, 1997: 198-201)에서 “물질주의는 인간에게 공간의 부자가 되라고 권하여 인간은 시간축적의 과업을 망각하고 인간과 영토의 정복에 전념한 결과 자본주의의 오류인 제국주의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본래의 3차원을 복원, 심화하고 거리를 중시하는 대신 ‘시간’을 중시해야 한다”(OC I, 1997: 199-200)고 한 Gaspar Martín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공간은 시간의 에피소드들 중 하나일 뿐이며 시간의 부속물일 뿐인 것이다. 공간축적과 시간축적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공간축적은 단지 시간축적을 실현하는 한가지 방법일 뿐이며 시간의 축적은 곧 체험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체험의 축적은 우리에게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역사를 기록하는 자에 따라 그 기준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 기준에 따라 틀지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가능한 역사란 국가나 민족 등과 같은 커다란 덩어리를 기준으로 그것과 다른 사회현상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한 국가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커다란 덩어리만을 역사라고 하기에는 개개의 부분에 작용하는 힘이 너무 크고 같은 원인에 대한 다른 영향 또한 제대로 파악되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사고에서 역사는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는 이해가능한 역사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식소를 역사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역사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보르헤스의 글쓰기는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르헤스는 결코 역사가가 아니며 또한 역사를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시간의 축적은 곧 체험의 축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인간의 그리고 자신의 체험과 독서를 포함한 자신의 과거는 바로 자신의 작품 속에 녹아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보르헤스의 글쓰기는 곧 보르헤스의 역사이며 이때 우리는 기존의 '역사'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단순한 과거일 테지만, 역사가가 아닌 작가 보르헤스가 기술하는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르헤스의 시간에 대해 그리고 역사에 대해 얘기할 때는 그것이 직선적인 시간관이나 순환적인 시간관이나 하는 문제는 뒤로하고, '영원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의 '영원성'이란 어느 한 가지가 사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의 '영원성'은 결코 아니다. 보르헤스에게 있어서 '영원성'은 끝없이 작용하는 힘이라 할 것이다. 즉, 한 개인의 일이나 그 개인의 글쓰기에 있어서 결단코 과거의 영향을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끝없이 작용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학자가 아닌 작가 보르헤스가 역사를 보는 눈은 과연 어떻게 다르며 무엇으로 역사를 이해했는가, 그리고 보르헤스의 역사관이 갖는 의의는 과연 무엇이며 그토록 '영원성'에 집착했던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보르헤스의 '영원성'과 '역사'는 어떻게 고리지워지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선입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르헤스의 역사관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의 작품 중 “죽지 않는 사람들 El Inmortal”(OC I, 1997: 533-544), “신의 글쓰기 La escritura de Dios”(OC I, 1997: 596-599), 그리고 “알렘 El Aleph”(OC I, 1997: 617-627)을 중심으로 보르헤스의 시간에 대한 개념과 과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과거를 짚어낸 책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그의 역사관과 글쓰기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영원한 현재, 죽음을 가장한 영원성

역사가가 아닌 작가 보르헤스의 역사관이 갖는 의의를 살피려할 때 ‘영원성’의 문제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연구가 ‘거듭하여 의심받고, 발전하여, 극복되기’를 바라는 후대 역사가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화두라 할 것이다. 보르헤스는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 공간을 배제할 수는 있으나 시간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OC IV, 1997: 198) 이제 이 구절은 보르헤스의 예언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미 우리는 사이버공간을 향해하며 30인치도 안 되는 모니터를 통해 전세계를 누비고 있으니 말이다. 조만간 우리의 항로가 우주에까지 미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 또한 조심스럽게 예견해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보르헤스의 말대로 우리는 공간적 제약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며 시간을 구속하지도 못한다. 시간은 지나가는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우리는 역시 우리이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기억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보르헤스는 우리들의 상당부분은 우리들의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상당부분이 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말한다.(OC IV, 1997: 199)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억은 상당부분 망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에서 인용했듯이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 그처럼 심오한 수수께끼를 꼬치꼬치 파고들려는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보르헤스의 작품에서 깨달음은 곧 죽음, 혹은 망각으로 이어진다. “죽지 않는 사람들 El inmortal”에서도 “알렘 El Aleph”에서도 그리고 “신의 글쓰기 La escritura de Dios”에서도 깨달음은 망각으로 이어진다.

보르헤스는 “죽지 않는 사람들 El Inmortal”을 시작하며 베이컨의 구절을 인용한다:

솔로몬은 “지구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플라톤이 모든 지식은 단지 회상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모든 새로운 것은 단지 망각의 결과일 뿐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프란시스 베이컨: 「에세이」, 58(OC I, 1997: 533)

주인공은 ‘죽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스런 도시’를 찾아 헤매인다.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는 종족들이 사용하는 일련의 기호에 대해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일련의 기호들은 마치 꿈속의 글자와 같았고 그 뜻이 이해되는 순간 혼돈 속으로 서로 뒤엎쳐버리곤 했다. 더욱이 그 기호들은 하나도 동일한 것들이 없었고 주인공 또한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끝부분에 가까워지면서 그의 기억의 영상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남아 있는 것은 단지 ‘말들’ 뿐이다. 나는 시간이, 한때는 나 자신을 의미했던 ‘말들’을 그 많은 세기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어떤 운명을 상징했던 ‘말들’과 혼동되도록 만들었을 거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나는 호메로스였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율리세스처럼 아무도 아닐 것이고, 간단히 말하면 모두일 것이며, 나는 죽을 것이다.(OC I, 1997: 543)

개인적 기억이 영원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보르헤스는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쓸모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OC I, 1997: 540) 망각을 모르는 기억은 이미 영원성을 가질 수 없다. 보르헤스에게 있어 영원성은 단순한 윤회의 개념을 뛰어 넘는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바퀴 안에서 각 개인의 삶은 前生の 결과이며 後生을 낳지만, 그 어느 삶도 전체를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은 과거에 그들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메아리에 불과하며 혹은 미래에 어지러운 정도로 그것을 되풀이할 타인들의 조짐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메아리일 뿐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말들’은 바로 시간의 흔적이다.

말들, 제자리를 잃고 불구가 된 말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바로 시간이 저자에게 남겨준 보잘 것 없는 적선이었다.(OC I, 1997: 544)

‘제자리를 잃고 불구가 된 말들’이 의미하는 바는 진정 횡설수설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규호에 따르면 “말은 지식의 ‘객관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주체적인 기관’이다. 말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을 대에도 역시 인간은 말을 통해서만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동시에 사유의 대상이며 또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규호, 1994: 51)이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고정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쓰이는 길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말의 결점이 아니라 말의 창조적인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시간 그리고 영원성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남아있는 말들’은 바로 시간의 흔적이며 그 흔적은 확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닌 가변적인 것이라는 말이 된다. 또한 이를 역사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역사에 대한 우리의 판단 또한 가변적이라는 말이 된다. 물론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고 기록한다. 가장 단순한 역사적 진술만이 절대적으로 진리인지 오류인지로도 판단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판단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이 점에서 보르헤스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발전적인 해석이야말로 역사의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때 역사를 텍스트로 바라보는 보르헤스에게 있어서 현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형성 중에 있는 것, 또한 그러한 현재의 영원성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이다.

“신의 글쓰기 *La escritura de dios*”에서 감옥에 갇힌 까홀롬의 사제 찌나간은 시간을 채워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쓴다. 그는 신은 그의 마술적 문장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될 세대들의 손에 들어가 우연에 의해 침탈당하지 않도록 장치를 덧붙여 놓았으나, 그것은 비밀스럽게 간직되어 있고 선택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읽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는다.(OC I, 1997: 596)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와 있고, 신의 마지막 사제로서 자신의 운명은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진 것이라

여긴다. 그리고 마침내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 때 잊을 수도 알릴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神性과의, 우주와의 합일이 일어났던 것이다.(나는 이 단어들이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다.) 무아경은 그 상정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것을 칼로 혹은 한 송이 장미의 원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다. 나는 매우 높은 바퀴를 보았는데 그것은 내 눈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있지 않고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했다. 그 바퀴는 물로 또한 불로 만들어졌고(비록 모호해 보였지만) 무한했다. 미래에 있을 것이고, 현재에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짜인 채 그것을 형성하였다.(OC I, 1997: 598)

‘미래에 있을 것이고 현재에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짜인 채’ 형성한 역사야말로 보르헤스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구절이라 할 것이다. 보르헤스에게 있어 미래는 “한 순간이 아니라 지상적이고 영원하다”(OC I, 1997: 517)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찰나간도 역시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망각한다.

알렘을 발견한 작품 속의 보르헤스는 어떠한가? “알렘 El Aleph”의 보르헤스에게 있어서 알렘은 모든 지점을 포괄하고 있는 어떤 공간지점들 중 하나이다.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모든 각도에서 본 지구의 모든 지점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 역시 알렘을 망각하고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세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죽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크기가 무덤과 엇비슷한 크기의 돌로 만든 타원형의 구덩이 안에 손이 묶인 채 누워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OC I, 1997: 531) “신의 글쓰기”의 찰나간은 깊고, 돌로 만들어진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또한 “알렘”의 보르헤스는 사촌 아르헨티노 다네리의 집 지하실 한 귀퉁이에서 알렘을 발견한다. 이는 보르헤스에게 있어서 공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그가 인용했듯이 “‘영원’이란 ‘현재의 시간’에 조용히 ‘서있는 것’, 그러니까 그 학파 사람들이 부른 바대로 “Nunc-Stans(지금 있는 것)”(OC I, p. 617)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Hic-Stans(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공간’의 ‘무한한’ 광활함

정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OC I, 1997: 617)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흔적’일 뿐이다. 그리고 ‘시간의 흔적’에 대한 언급 또한 세 작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다. 보르헤스가 “죽지 않는 사람들”에서 언급했던 “제자리를 잃고 불구가 된 말들”이 “신의 글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

미래에 있을 것이고, 현재에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짜인 채 그것을 형성하였다.(OC I, 1997: 598)

그리고 같은 의미의 말들이 “알렙”에서는 ‘하나의 과거’라는 말로 구체화된다.

모든 언어는 상징들의 알파벳이다. 그것의 사용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과거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OC I, 1997: 624)

보르헤스의 말대로 우리들이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억은 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끝없는 기억은 이미 개인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보르헤스는 “우리의 정신은 잊기 위해 구멍이 나 있다”(OC I, 1997: 627)고 말한다. 만일 우리의 정신에 틈이 없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기억이 아닐 것이다. 망각은 개인적인 기억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가 된다. 보르헤스의 작품에서 진리의 발견은 그에게 “공간과 시간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징의 추구로 표현된다.”(Anzieu, 1975: 240) 영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보르헤스는 영원이란 단순히 우리의 모든 과거의 총합이 아니라고 하였다. 영원이란 우리의 모든 과거, 모든 의식적인 존재의 모든 과거이다. 모든 과거, 즉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과거인 것이다. 그리고 영원이란 모든 현재이다. 보르헤스의 말대로 “모든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행성들 사이의 공간을 포함하는 지금이 순간”(OC I, 1997: 199)이며, 또한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미래,

하지만 항상 존재하는 미래”(OC I, 1997: 200)인 것이다. 시간은 연속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보르헤스의 생각이다. 그 연속은 수많은 운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안 줄곧 지속되는 영원한 현재이며 그 수많은 운동은 과거로, 그리고 그 과거는 역사로 바뀌게 될 것이다.

Ⅲ. 상상력으로서의 기억과 묘사로서의 과거

알레를 본 작품 속의 보르헤스는 절망감을 느낀다.

이제 나는 말로 형용할 길 없는 내 이야기의 중심부에 이르러 있다.
바로 여기서 작가로서의 나의 절망이 시작된다.(OC I, 1997: 624)

언어학자 립스에 따르면 말은 “객관적인 사물에 붙은 이름이 아니고 인간이 그의 삶의 환경과의 대결에서 취하는 태도와 더불어 구성된 사념을 표현하는 것”이다.(이규호, 1993: 72)⁴⁾ 미셸 푸코도 “시간은 인간 이외의 어디선가에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생물의 역사와 상물의 역사와 단언들의 역사가 중첩되어야만 한다”(푸코, 1991: 421)고 말하였다. 이는 곧 인간이 언어에 있어서 말하는 주체이고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바로 그 주체인 까닭에 인간만이 언어를 통하여 단순한 수동적 역사를 능동적인 역사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보르헤스는 “인간은 길게 보면 그의 환경이다”(OC I, 1997: 598) 고 말하였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언어로 표현하지만 그 환경이 과거의 범주에 들어설 때 보르헤스의 글쓰기는 단순한 ‘순간적 기억’에서 나아가 창조적 기억으로 시간의 개입을 허용한다. 기억의 도움을 받아 과거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기억은 상상력의 다른 이름이

4) H. Lipps, *Untersuchungen zu einer hermeneutischer Logik*, Frankfurt a.M., 1938, S. 104, 여기서는 이규호, 『말의 힘』, 제일출판사, 1993, p. 72에서 재인용.

된다. 보르헤스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작가의 상상력일 따름일 뿐이다. “죽지 않는 사람들”이나 “알렙” 그리고 “신의 글쓰기”가 온전히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단지 있었던 것처럼 기록한 글들일 뿐이다. 이때 그의 기억은 오직 ‘상상력으로서의 기억’에 다름 아니다.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어떠한 역사가도 자신만의 가치를 위해서 역사를 초월하는 객관성을 주장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역사가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는 ‘사회 안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는 시야를 넘어서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시야를 미래에 투사하여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더 심원하고 더 지속적인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카, 1998: 238) 또한 소설가 박완서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⁵⁾의 서문에서 “소설이라는 집의 규모와 균형을 위해선 기억의 더미로부터의 취사선택은 불가피했고, 지워진 기억과 기억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되었다”(박완서, 1992: 서문)고 적고 있다. 여기에서 그의 글쓰기는 단순한 ‘순간적 기억’에서 나아가 창조적 기억으로서의 시간의 개입을 허용한 것, 즉 기억의 도움을 받아 과거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기억은 상상력의 다른 이름이 된다. 그 자신도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작가의 상상력일 따름”이라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보르헤스와 유사점을 가진다. 보르헤스에게 있어서 현재는 하나 뿐이며 기억이 시간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완전한 것으로 이해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다. 또한 미래는 경험하지 못한 과거이다. 만일 절대 미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직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상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자마자 기억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과거는 우리의 축적된 경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일컫는 이름이다.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든, 과거의 중요성은 지속된다. 우

5)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서울: 웅진출판사, 1992.

리의 상상도 생겨난 순간 과거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과거를 계속 연구할 것이다. 결국 과거 밖에는 연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고정불변의 영원과는 달리, 어떤 길이를 가진 시간은 그 동일한 기간 안에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는 “수많은 운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안 줄곧(ex multis pratereuntibus motibus)” 지속된다고 한다. 이런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런 운동은 과거로 바뀐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영원한 현재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영원성일 것이다. 보르헤스는 “책은 기억과 상상의 확장”(OC I, 1997: 165)라고 말한다. 역사가 보르헤스가 아닌 작가 보르헤스의 역사는 바로 텍스트이며 그 텍스트는 바로 기억과 상상의 확장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기억과 상상의 확장을 통하여 인간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인간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는 고유한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다.

IV. 과거를 짚어낸 책

이제 영원성에 기초한 역사관은 보르헤스의 글쓰기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보르헤스는 책은 기억과 상상의 확장이라고 말한다.(OC IV, 1997: 165) 기억과 상상이란 곧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 과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모든 의식적인 존재의 모든 과거, 그리고 확장된 상상 또한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릴 그런 과거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은 변화였고, 단어의 함축은 다른 것이 되었다. 더욱이 책은 과거를 짚어지고 있다. 보르헤스는 식물이 에너지를 모방하고 동물이 공간을 축적하듯 인간은 시간을 독점하기에 인간의 존재는 최상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기로 정원 El jardín de senderos que se bifurcan”에서 Ts’ui Pen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Ts’ui Pen은 무한한 종류의 시간, 다시 말해서 분산하고 수렴하고 평행하는 사건들이 어

지럽게 얽혀 증가하는 그물망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시간망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제 보르헤스에게 있어서 '과거'는 모든 의식적인 존재의 모든 과거로서의 영원성이며 '가능성'을 담고 있는, 즉 미래로서의 영원성이 된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과거는 “죽지 않는 사람들 *El inmortal*”에서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에 했던 다른 행동과 사고의 메아리”(OC I, 1997: 542)로 표현된다. 빅 뱅 이론가들에 따르면 시간은 어느 분명한 순간에 탄생했으며, '대폭발'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전'과 '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탄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묻는 것은 부질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수레바퀴 속에서는 시작이란 것도 없고, 끝이란 것도 있을 수가 없다. 현재의 삶은 전생의 결과이며, 그리고 그것은 다음 생을 낳는다. 그러나 그 어떤 삶도 전체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보르헤스의 이러한 생각은 “미래에 있을 것이고, 현재에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짜인 채 형성된 알렙”으로 집약된다.

영원성은 보르헤스에게 작가로서의 절망감을 안겨준다. 상징의 알파벳인 모든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과거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시황이 자기 이전의 모든 책을 불사름으로써 역사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명하였을 때에도 중국인들은 이미 3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은 언어구조 혹은 일련의 언어구조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독자와 시작하는 대화, 목소리에 부여된 억양, 기억에 남긴 변화무쌍하고 지속적인 상상들이며 그 대화는 무한하다. 또한 문학은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는 충분하고도 단순한 이유로 인하여 고갈되지 않으며 책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책은 관계이고, 수많은 관계의 축이다. 그리고 “한 문학은 최소한 읽히는 방법만으로도 이전 이후의 책과 다르다”(OC II, 1997: 463)는 보르헤스의 말 또한 과거를 전제로 한, 영원성에 기초한 그의 역사관을 대변한다.

V. 맺음말

마틴 리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답은 과거에 있다”(리스, 2000: 288)고 말한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가 현미경으로 보여야만 겨우 보일 만큼 작은 크기로 수축해 있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속에 미래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독점한 인간이 지닌 독창성은 역사에 기초한 글쓰기에 있다 할 것이다. 기억의 최종적 결과물이라 할 인식이 쌓인 과거, 그리고 상상이 확장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는 미래로서의 역사는 주인공들로 하여금 죽지 않고 계속하여 필사토록 할 것이다.

보르헤스의 말처럼 네 것이었던 그 붙잡을 수 없는 오후는 영원성에 있는 것이지 기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르헤스가 역사적이거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데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조한욱은 그의 책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⁶⁾에서 자연과학적 역사읽기가 아닌 인문과학적 역사읽기의 방법으로 클리포드 기어츠의 역사읽기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방식은 우선 ‘두껍게 읽기’, 서구중심적 남성중심적 역사 서술을 탈피하려는 ‘다르게 읽기’, 큰 사람들의 시각을 벗어나 작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는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그리고 결국은 기존의 역사이해와 서술방식을 ‘깨뜨리기’⁷⁾이다. ‘두껍게 읽기’란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인문과학에서의 글읽기에 전제가 되는 방법으로서 클리포드 기어츠의 ‘두꺼운 묘사 thick description’ 개념에 힘입은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에 대해 접근할 때에 자연과학에서는 사과라는 물체와 관련된 외형적, 객관적 사실들은 묘사한다. 즉, 사과의 원산지, 주요 생산지, 크기, 색깔, 영양가와 같은 것들을 얇게 묘사한다. 묘사된 것을 벗기면 그 밑에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면 인문과학에

6)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

7) ‘두껍게 읽기’와 ‘다르게 읽기’와 ‘작은 것을 통해 읽기’는 결국 ‘깨뜨리기’로 통합된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역사학이 유지해왔던 역사의 이해와 서술방식을 해체시키는 작업이며 언제나/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정형화된 틀을 깨뜨리려는 노력이다.(조한욱, 2000: 15)

서는 사과 자체보다는 그것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를 다룬다. 예를 들면 트로이 전쟁의 사과, 뉴턴의 사과, 빌헬름 텔의 사과와 같은 역사적 층위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사과가 파생시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조한욱, 2000: 12-13) 이는 텍스트를 하나의 기호로 보고 텍스트의 무한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보르헤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다르게 읽기’는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역사를 보는 관점과는 다른 맥락에서 역사를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넓은 의미에서 서구 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이며 승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 서술이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체제를 미화시키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르게 읽기’란 이런 보수적 성격에 의문을 품고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조한욱, 2000: 13-14) ‘다르게 읽기’는 ‘작은 것을 통해 읽기’라는 또다른 접근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역사를 지배해왔던 ‘큰사람들’에서 벗어나 박해받고 소외되었던 ‘작은 사람들’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시사라고 불리는 ‘작은 것을 통해 읽기’는 단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무명인물의 개인적인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들로 대변되는 대다수 민중의 삶과 생각의 방식을 종래와는 다른 시각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다.(조한욱, 2000: 14-15) 보르헤스의 상상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역사의 큰 흐름에 위치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조한욱이 제시한 방법은 역사적 시각의 외부에서 역사를 보려했던 아날학파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민중의 삶과 생각의 방식을 종래와는 다른 시각에서 찾고자’ 하는 점은 한 텍스트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보르헤스의 글쓰기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깨뜨리기’에 집결되고 이는 글쓰기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보르헤스의 역사관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조한욱이 제시한 역사 읽기의 방식과 보르헤스의 글쓰기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그리고 보르헤스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우선 보르헤스가 보는 역사관과 글쓰기의 관계는 조한욱이 제

시한 예와 같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며 이는 우리 시대의 글읽기와 글쓰기에 있어서 지침들이 된다. 보르헤스에게 있어서 역사는 하나의 텍스트인 까닭에 하나의 텍스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 이는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도 작가 보르헤스가 해석하는 역사는 우리에게도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풍요로운 읽기와 심미적 유희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영원하다거나 정해진 것이 정해진 방식대로 순환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영원성은 보르헤스에게 작가로서의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책이 기억과 상상의 확장이라 할 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상상이며 무한한 대화라 될 것이다. 보르헤스가 제시하는 역사관은 결코 역사적 진리를 다루는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역사관이 갖는 문학적 의미를 찾는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보르헤스는 결코 이것이 역사라고 정의를 내린 바 없다. 단지 암시하고 시사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오류를 지적하고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와 시간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작가 보르헤스는 기존의 역사가들과는 다른 눈으로 역사를 보았으며 역사를 보는 그의 다른 눈은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를 깨닫게 하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참고문헌

- 김성곤, “포스트모던 역사소설과 과거로의 여행”, *문학정신*, 1996 봄, 열음사.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서울: 웅진출판, 1992.
- 이규호, 『말의 힘』, 서울: 제일출판사, 1994.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책세상, 2000.
- Ambrose, Timothy, “Borges, Foucault y Derrida: la disolución de límites y la creación del texto”, *La Torre*, Año IX, Núm. 34, abril-junio, 1996.
- Anzieu, Didier, “El cuerpo y el código en los cuentos de J. L. Borges”, *Revista de Occidente*, Tomo XLVIII, Enero, Febrero-Marzo 1975.
- Bal, Mieke, 『소설이란 무엇인가』, 성충훈·송병선 옮김,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 Borges, Jorge Luis, *Obras Compleas*, I, II, III, IV, Barcelona: Emecé Editores, 1997.
- Borinsky, Alicia, “Re-escribir y Escribir: Arenas, Menard, Borges, Cervantes, Fray Servando”, *Revista Iberoamericana*, Vol. XLI, Núms. 92-93, Julio-Diciembre de 1975.
- Carr, E. H.,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1998.
- Concha, Jaime, “El Aleph: Borges y la historia”, *Revista Iberoamericana*, Vol. XLIX, Núms. 123-124, Abril-Septiembre, 1983.
- Eco, Umberto 외, 『시간박물관』, 김석희 옮김, 푸른숲, 2000.
- Foucault, Michelle, 『말과 사물』, 이광래 역, 서울: 민음사, 1991.
- Giordano, Enrique, “El juego de la creación”, *Hispanic Review*, Vol. 52, Number 3, Summer, 1984.
- Polo García, Victorino, ed., *Borges y la Literatura*, Murcia: Universidad de Murcia, 1989.

Scarrano, Tomasso, "Intertextualidad y sistema en las variantes de Borges", *Nueva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41:2, 1993.

Resumen

La visión histórica de Borges y su escritura

Min, Wonjung

Esta tesis trata de la visión histórica de Borges y su escritura. Las relaciones entre su visión histórica y su escritura es el objeto de esta tesis y pienso que cómo debería leer la historia en las obras de Borges y qué nos daría su visión histórica que difiere de las visiones anteriores. Para Borges, una literatura difiere de otra posterior o anterior, menos por el texto que por la manera de ser leída. Y el libro es una extensión de la memoria y de la imaginación. El libro ha cambiado cada vez que leemos un libro y la connotación de las palabras es otra y además los libros están cargados del pasado. Y lo mismo ocurre cuando Borges piensa en la historia.

Borges piensa que toda obra intelectual tiene su base en la historia que contenga el tiempo, es decir el pasado. El también piensa que el hombre acaprá el tiempo, lo que le hará posible reescribir infinitamente.

El nunca define qué es la historia y sus obras ni es una teoría de la historia. Es un escritor y el modo de entender la historia que un escritor lo hace es el sentido verdadero que Borges nos dio. Cuando lee la historia en las obras de Borges es uno de los esfuerzos para acercar a lo verdadero.

Key words : 역사(history), 글쓰기(writings), 시간(time), 기억과 망각(memory and forgetting), 상상(imagination)